

MEG, 아시아가격 50달러 “폭등”

CFR Korea 480-500달러 형성 … 에틸렌 공급부족으로 강세 지속

MEG 가격은 4월12일 기준 CFR Korea 톤당 480-500달러로 50달러 폭등했다.

아시아 MEG 시장은 공급부족과 수요증가가 겹치고 있는데 동남아 가격도 CFR SE Asia 기준 톤당 480-500달러로 평균 50달러 상승했다.

일본, 한국, 타이완의 에틸렌 크래커 정기보수에 따라 에틸렌 공급부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5월까지도 MEG 가격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GT Petrochem은 No.1 MEG 10만톤 플랜트의 가동을 4월8일부터 중지했다. 현대석유화학도 5월14일부터 6월10일까지 No.2 MEG 플랜트의 정기보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시아의 MEG 가격강세는 미국으로 이어져 미국 Gulf 지역으로부터 5월말 아시아에 도착하는 MEG 가격이 CFR China 기준 톤당 500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상들은 4월말 거래가격으로 FOB Korea 톤당 430달러를 제시해 CFR China 기준으로는 450달러를 나타내고 있는데, 중국 유통기업들은 CFR 470달러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Dow Chemical을 비롯해 Shell Chemicals, Sabic 등은 5월 계약가격으로 CFR 470달러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Shell은 보통 아시아 계약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반면, Sabic은 Dow에 비해 약간 낮은 선에서 계약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Sabic의 제시가격이 주목되고 있다.

유럽의 MEG 가격은 Spot가 FOB Rotterdam 기준 톤당 360-380달러로 변함이 없었다. 유럽에서는 2/4분기 계약가격도 515유로를 형성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MEG 가격은 A/F 그레이트 Spot가 US Gulf 기준 파운드당 19.00-22.00센트로 톤당 452달러를 형성해 톤당 평균 52달러 상승했다. 계약가격은 Fiber 그레이트 기준 FOB 22.00파운드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의 MEG 시장도 아시아의 에틸렌 가격강세 영향을 받아 원료가격이 급상승하고 수급타이트까지 겹쳐 폭등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수출가격도 CFR 톤당 450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MEG 계약가격은 Dow 기준 톤당 470달러 수준에 형성돼 있는데, Shell은 525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Sabic은 470달러를 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 Chemical Daily News 2002/ 04/ 18 >